



‘뷰티스맑은피부과’는 광주에서 가장 ‘핫’한 피부 전문병원이다. 그만큼 피부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력으로 개원 17년째,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피부가 질환이 아닌 미용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 시점, 뷰티스맑은피부과는 더 많은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피부과 전문의로만 꾸려진 의료진에 대한 높은 신뢰와 함께 ‘최첨단 치료장비’까지 더해져서다. 여기엔 국내 제일의 미용기기 얼리어답터(early adopter)로 불리는 신삼식 대표원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끊임없는 투자와 열정으로 피부미용에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신 원장을 만나 뷰티스맑은피부과의 성장 동력 전반과 간편한 피부관리 팁, 그리고 광주 의료산업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다.

“‘아름다움’에 열정·투자... 미래 의학 발전 선도”

△뷰티스맑은피부과만의 장점은.

2001년 뷰티스맑은피부과를 개원한 이래 꾸준히 새로운 학문과 레이저에 대한 연구와 투자에 힘써오고 있다. 새로운 레이저를 꾸준히 사용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입했던 레이저가 150여대에 이를 정도다. 기존 레이저는 새로 업그레이드된 장비로 교체해오면서 현재도 50여대의 최신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다.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문의에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과는 전문의를 사칭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피부과를 표방하는 경우는 유난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서울지역의 경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가 70% 정도로 더 많다고 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한 예로 보면 피부암을 검버섯이나 점으로 잘못 진단해 단순히 레이저 치료를 했다가 전신으로 전이된 후엔 피부과에 오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일반진료를 볼 수 있지만 의사면허 취득 이후에 4년간 피부과 전문의 과정을 거쳐야 전문의가 돼 진료하게 된다. 피부의 오타모반이나 화염상모반 등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라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뷰티스맑은피부과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색소 및 혈관 질환까지도 정확하게 진단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모발이식이 특하나 유명하네.

탈모를 고민하는 사람이 중년 남성에서 젊은 층과 여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약물치료는 탈모가 더 진행되지 않게 막아줄 수 있지만 이미 빠진 모발에는 효과가 없다. 모발이식은 크게 절개식과 비절개식으로 나뉜다. 절개식은 수술용 칼로 뒷머리에서 두피를 떼 모낭을 이식하고, 비절개식은 절개 없이 핀치 도구로 모낭을 직접 뽑아 탈모 부위로 옮겨 심는 방법이다. 절개식 모발이식은 두피를 떼 흉터가 남는 게 단점이고, 비절개식은 통증과 흉터가 적어 회복이 빠르지만 모낭을 하나하

나 채취므로 생착률이 떨어지고 탈모 부위가 넓은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게 한계다. 뷰티스맑은피부과는 이런 비절개식의 단점을 보완한 최첨단 로봇 모발이식을 도입했다.

워낙 고가라 사용하는 곳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다. 특히 이 모발이식은 사람의 눈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모발 분포, 밀도, 각도, 깊이까지 정교하게 분석해 모발을 채취한 뒤 이식하는 비절개식 기술로, 생착률이 90% 이상으로 높고 단시간에 5000모낭 정도의 많은 양을 이식해 만족도가 높다.

와 뜻을 같이한 여러 피부과, 성형외과 선생님들과 함께 임상해부학회를 만들어 ‘항노화미용해부 연구회’를 결성했다.

△전문으로서의 자부심이 상당하다.

지금이야 피부과가 유명한 과거 됐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다. 목숨과 상관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결국 더 멋지게 사는 것, 아름답게 사는 것을 추구하게 됐다. 그 결과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그게 채 30년이 안 된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우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유가 되면 이를 이웃과 같이 공유하고 싶었다.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평소에도 제가 가진 것이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기부를 하고 있는데 많이 알려진 것 같다.

△광주 의료관광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선7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다. 광주는 면세점이나, 쇼핑이 발달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만큼 광주만의 매력, 인프라에 구축에 집

신 삼 식 뷰티스맑은피부과 대표원장



신삼식 대표원장은 “아름다움을 위한 열정과 투자로 피부의학 발전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민들을 위한 기회 제공과 함께 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분야별 피부과 전문의 6명 진료...첨단 레이저 활용한 치료·관리

로봇 모발이식 흉터 등 부작용 ↓...생착률 90%·다량 이식 가능

△피부과 전문의가 된 계기는.

의과대학 시절 어떤 과가 나에게 맞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다. 그 결과 저의 재능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피부미용이었다. 그래서 피부과 쪽으로 진로를 정했다. 어떻게 보면 미용 1세대다. 레이저 기술부터 미용 성형수술 등 피부과 학회에서 꼭 공부를 해야겠다. 미용 기술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배울 데가 없었기 때문에 브라질, 미국, 독일 등의 나라에서 개인 교육을 통해 노하우를 쌓았다. 지금은 그런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면서 보람을 느낀다.

△피부학회 활동도 왕성하다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피부과학회에게 100여 차례 강의를 해오고 있다. 레이저 뿐만 아니라 보톡스와 필러 같은 미용처리를 겸해오면서 늘 부족함을 느꼈던 것이 안면해부학이다. 외대에 다닐 때는 전반적인 해부학을 배우기 때문에 실제로 개원해서 임상에 필요한 얼굴 해부학적 배운 곳이 없어 배움에 목말랐었다. 이에 따라 수년 전부터 전남대 해부학교실의 남광일 교수

리나라가 피부 미용 쪽으로 걸음마를 댄 단계였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배우러 온다. 피부 미용의 1세대로서 피부 미용의 발전을 전 세계적으로 리드하는 위치에 올려놨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병원 내 KIA타이거즈의 역사가 담긴 야구 전시실이 있다. 기념품들은 어떻게 모으게 됐나.

고등학생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다. 벌써 35년도 넘었다. 우연찮은 기회에 의미 있는 야구 물품들을 기증받게 됐다.

△피부를 챙기는 방법은.

사람의 피부 두께는 2~3mm 정도다. 그래서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금방 익어버린다. 그걸 차단하려고 멜라닌 세포가 까맣게 색소를 만드는 것이 기미잡티다.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을 항상 발라줘야 하며, 세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과 기부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다. 나눔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증해야 한다. 또 동시에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의료산업에 대한 지원을 말하면 일각에선 ‘돈 잘 버는 의사들에게 무슨 지원금까지 주느냐’고 타박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한 개인이나 특정 병원이 아닌, 의료산업 전체의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한다. 의료산업은 무한하다. 실제, 낙후된 도시가 의료산업의 발달로 풍족한 도시로 변모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무수히 많다.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

광주에서 계속 병원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좋은 기회 제공과 함께 도움이 되고 싶다. 간혹 피부과 동료들은 서울에서 병원을 하지 왜 지방에서 하나고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저는 땅이나 금을 사기보다 지역민들에게 더 좋은 레이저 기술을 해주기 위해서 장비에 투자를 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뷰티스맑은피부과는 아시아에서 제일 많은 레이저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병원과 의학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고귀한 기자 pressgh@gwangnam.co.kr



- ▲전남대병원 피부과 수료
- ▲피부과 전문의/의학박사
- ▲대한미용 피부외과학회 이사
- ▲항노화미용해부학회 회장
- ▲광주 의료관광협의회 부회장
- ▲광주보건대 피부미용과 외래교수 역임
- ▲전남대피부과 외래교수
- ▲뷰티스맑은피부과 대표원장

https://blog.naver.com/zp2007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기업부설연구소



1%의 부족함까지도 디자인하는기업

· 실내 디자인 / 설계 | · 환경 디자인 / 설계 | · 경관 디자인 / 설계 | · 조경도 | · 옥·내외 사인물 디자인 / 설계 | · 시설물 디자인 / 설계 | · 카타로그 | · CI, BI | · 패키지 포장재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53 (신안동, 2층) · 대표전화 : 062,433,8800 · 팩스 : 062,523,8824 · E-mail : zp2007@hanmail.net